

◎한국 IPG의 활동

- 제 47회 한국 IPG 세미나 ‘K-브랜드와 한국의 지식재산’을 개최했습니다 01
- AI 시대 한국의 지식재산 04

◎IP를 알자

- 한국 IP 뉴스 05
-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국민의 아이디어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 2026년도 예산으로 보는 지식재산 행정의 전망
 - 2025년도 특허출원 건수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사무국 메시지

어느덧 완연해진 봄 기운과 함께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업계에서도 시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는 뉴스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퀴즈를 맞춰봅시다!

지식재산처는 ‘처’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기관을 대표할 홍보대사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중 지식재산처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 ① 김석진 ② 이지은 ③ 이세돌

※ 정답은 본지 3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IPG의 활동

제 47회 한국 IPG 세미나 ‘K-브랜드와 한국의 지식재산’을 개최했습니다

2026년 2월 5일, 일본 오사카에서 제 47회 한국 IPG 세미나 ‘K-브랜드와 한국의 지식재산’이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오오타니 토오루 한국 IPG 리더가 회사를 통해 “약 8년 만에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라며 “한국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그 현황과 성공 요인, 지식재산과의 관련성을 일본어로 상세히 해설한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이번 세미나가 매우 유의미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본 내 한국 지식재산 관련 IPG 세미나가 도쿄 외 지역에서도 개최되었으나, 최근 수년간은 개최가 중단되거나 도쿄 지역으로 국한되는 등 제한적인 운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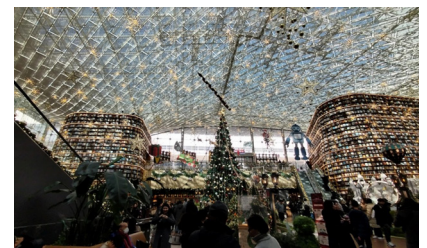


오오타니 리더의 개회사 모습

이어서 오오즈카 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이 ‘K-브랜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 전반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자 오프라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성수’를 소개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성수는 서울의 기존 대표 인기 관광지인 광화문·시청 또는 강남·삼성역 권역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화문·시청 일대 모습 (덕수궁과 서울시청)



강남·삼성역 일대 모습 (별마당 도서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무신사역'으로 역명변기



현재 성수 지역의 모습

성수 지역은 본래 공업지대로 발전해 왔으나, 현재는 국내외의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집결하여 다각적인 시도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매장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까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분위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축 매장은 물론, 옛 공장을 리모델링한 공간이나 근사한 카페가 입점해 있는 곳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분위기 덕분에 성수는 사진에 담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부상하며, 개인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전체가 마치 오프라인 광고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되는 매장도 있지만 특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팝업스토어가 많다는 점 또한 성수만의 매력입니다. 매장마다 체험형 콘텐츠가 다르며 시각적인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향기 등 오감을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개성있는 기획들이 돋보입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소소한 증정품(기프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성수를 방문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기간 한정 팝업스토어가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업 지구에 비해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는 이유는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이 뒷받침되었고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나 '구매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즐거움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의류, 화장품, 가방, 음식, 아이웨어, 신발 등 다양한 업종이 한곳에 모여 있어 성수에서만 선보이는 콜라보레이션이나 기간 한정 팝업, 유명 앰버서더 프로젝트 등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선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체험과 체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으로 모여든 방문객을 브랜드 체험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

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여러 매장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지식재산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가로 판매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동일한 성수권역 내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형상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실제 비즈니스에서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경우 지식재산권 취득보다 다른 요소를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타사에서 유사 상품이 출시될 경우, 산업재산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성수권역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지라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비즈니스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을 병행하여 수립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강연 전반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연 후반부에서는 이른바 'K-브랜드'라 불리는 세계 속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관점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 한국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작년에는 가수 지드래곤(G-DRAGON)의 소속사로 알려진 갤럭시코퍼레이션의 안영노 이사의 강연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강연은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가 학술적으로 정리한 K-브랜드 관련 논문을 해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당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K-브랜드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영노 이사의 강연에서 K-브랜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K-Drama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겨울연가' 등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었던 시기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 콘텐츠로 부상하며 드라마 시청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글로벌 확산에 비례해 수요가 상승하며 현재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K-Music은 한국 연예계 특유의 퍼포먼스 중심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음악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배우 및 가수 등을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의 앰버서더로 기용함으로써 관련 상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K-Pattern과 관련하여 인기 아티스트 등

의 팬층을 뜻하는 '팬덤(Fandom)'과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이 만들어낸 '팬덤 신드롬'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 관람에 그치지 않고, 굿즈 및 관련 콘텐츠 구매 등 비즈니스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K-브랜드는 이러한 다각적인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비즈니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방안과, 무단 도용 및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리스크 관리 전략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에 OTT를 통해 방영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까지 더해지며 높아진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이 인기를 얻는 현상으로도 이어져, 인기상품 중 일부는 입고되자마자 즉시 품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식재산청은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에 입점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제도와 해외 권리화 등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거나, 기업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사상품이 유통되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청취할 의사를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후반부의 강연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먼저 "온오프라인에서의 위조상품 대책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번째로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이벌로 인식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특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상에서 유통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도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을 감시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도 독자적으로 자사 제품을 감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감시 및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의뢰하여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정부와 민간 양측이 병행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은 시장 규모가 큰 일본 시장에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시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일본 시장에 진입한 외국 기업 간의 동향 또한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오츠카 부소장의 강연 모습

한국 지식재산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한국 지식재산 뉴스 (뉴스레터 매달 2회 발행)
- 법률개정 정보, 정책 정보, 통계 정보
-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700건 이상의 지재 판례 개요 및 전문가 조언 제공)
- 각종 조사보고, 매뉴얼 등 제공 중



<https://www.jetro.go.jp/korea-ip>



정답은 ③ 이세돌 홍보대사입니다. 단순히 승패를 떠나, AI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전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인 '알파고 대국'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세계적 도전'을 펼쳤던 이세돌 9단이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향후 AI 시대 지식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이 기대됩니다.

○ AI 시대 한국의 지식재산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혁신이 폭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문 분야부터 일상적인 이용 사례에 이르기까지 AI를 접할 기회가 폭넓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확산세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2024년 및 2025년 특허출원 건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산출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특허출원 건수 추이 | | | |
|------------|---------|---------|------|
| | 2024년 | 2025년 | 상승률 |
| 일본 | 306,855 | 358,317 | 117% |
| 한국 | 246,245 | 260,797 | 106% |
| 미국 | 663,809 | 678,108 | 102% |

(각 출원 건수 수치는 일본 특허청 현황보고서(Status Report), 한국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미국 JETRO 뉴욕사무소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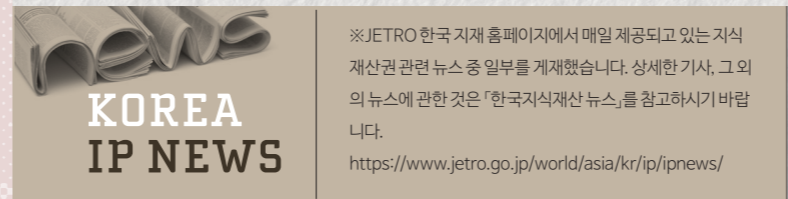
3개국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일본에서는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며, AI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또한 2026년 1월 29일,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 '특허출원 최초로 26만 건 돌파! 세계 4번째 쾌거'에 따르면 "최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특허출원이 사상 처음으로 26만 건을 달성했다. 2013년 20만 건 돌파 이후 12년 만이다. 특허출원을 26만 건 이상 달성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일본(1984년), 미국(1999년), 중국(2008년)에 이어 한국이 4번째다. 2024년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출원 규모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5년에도 세계 4위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특허출원도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2025년 국내 특허출원 상위 10개 분야 중 AI와 양자 기술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관련 산업 특허출원이 27,0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또한,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도 10,624건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대표 3개사를 비롯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원 건수가 늘어난 결과이며,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기업이 AI 대전환 시기를 기회로 인식해, AI와 양자 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치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AI 관련 기술이 한국에서도 특허출원 건수 증가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이 지식재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처 역시 각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자료 내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가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발표된 자료들만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으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AI 관련 시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 | |
|-------------|--|
| 2026.3.12 | 지식재산처, 이세돌과 함께 '대한민국의 다음 수' 알린다 |
| 2026.3.4 | 한-필리핀, 지식재산 보호와 인공지능으로 협력 확대! |
| 2026.3.3 | 한-싱가포르,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 협력의 지평을 열다! |
| 2026.2.26 |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KIPRIS "인공지능 세대가 묻고 KIPRIS가 답하다" |
| 2026.2.26 | 지식재산 교육으로 인공지능 전환 시대 혁신성장 지원 |
| 2026.2.23 |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1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
| 2026.2.9 | 지식재산처, 생활밀착형 짝퉁 유통에 칼 빼들어 |
| 2026.1.27 | 특허로 성장한 K-인공지능 기업, 글로벌 시장 선도한다 |
| 2026.1.22 |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
| 2026.1.19 | 韓,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강유전체 소자' 특허출원 세계 1위 |
| 2026.1.15 | 인공지능 특허심사사례, 심사실무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또한 2026년 2월 24일,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 '불확실성의 시대, K-특허로 돌파! 새해 첫 달 지식재산권 출원 역대 최고치 달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2026년 1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모든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출원 건수가 크게 상승했음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출원인 유형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6년 1월 개인의 특허출원은 5,478건으로, 지난해 12월 출원 건수(5,067건)를 넘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월(1,76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증가(증가율 210%)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허출원도 5,758건을 기록하며 전년 1월(3,850건)과 비교할 때 약 50% 증가하였다"라며 "이러한 개인의 특허출원 건수 증가는 챗 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계기로 정보 통신 기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이라 할지라도 AI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지식재산과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도 AI를 활용하며 손쉽게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권리화하는 일 또한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식재산의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현장은 물론, 이를 다루는 변리사 등 전문가, 지식재산 행정을 다루는 심사관 및 행정관청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극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환경 변화가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어떠한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가 필요하게 될 것인지, 매우 흥미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IPG}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 지식재산처 (2025.11.27)

국무조정실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번 로드맵은 세계 각국에서 AI 기술을 사회·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인식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속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법제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AI 관련 협회·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및 2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며 네거티브 방식 등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해 전방위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였다. 로드맵은 AI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① 기술개발 ②서비스 활용 ③인프라 ④신뢰·안전규범 4가지 분야에서 총 67개의 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AI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유연한 규제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②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 지식재산처 (2025.12.23.)

지식재산처는 12월 23일부터 디자인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 디자인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최신 AI 이미지 검색 모델을 채택하고, 약 52만 건의 신규 학습데이터로 모델을 최적화하여 검색 정확도를 높였다. AI 검색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다음 달에는 'AI 기반 특허 문장 검색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도 시작한다. 약 70만 건의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학습시켰으며, 기존 문헌 중심의 검색에서 유사한 문장 또는 문단까지 찾아주는 방식으로 검색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심사관들이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한 선행 기술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구축된 선행기술 AI 학습데이터는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특허 문장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한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AI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상표 이미지에 대한 설명문을 생성하고 자동 분류하는 상표분류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AI 언어모델을 기존 특허 심사 시스템과 연계하는

Agentic AI 서비스 연구를 통해 심사 전반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인공지능 특허심사사례, 심사실무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지식재산처 (2026.1.15.)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지컬 및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분야를 반영한 '인공지능(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는 AI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 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무 지침서로, 2020년 제정 이후 AI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정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새로운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최신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하여 국내 AI 대표 기업 및 기관과 소통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새롭게 추가된 사례들은 특허 인정 및 부정 사례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해 인공지능 연구자, 발명자가 특허출원 시 참고하도록 구성되었다. 예컨대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서빙 로봇 제어' 사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AI 모델을 경량화해 탑재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음식집 내 환경, 로봇의 가용자원 등을 반영해 최적화하여 경량화한 경우에는 특허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심사실무가이드의 사례들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판단된 것이므로, 실제 심사 시에는 해당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 발표 | 지식재산처 (2026.2.2.)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피지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을 2026년 12월 말 기준 14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제한적이었던 우선심사 대상을 피지컬 AI까지 확대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한다. 또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며, 수출촉진 분야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해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 대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심사 인프라도 보강한다. 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한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 원으로 편성해 전체적인 심사 대기 기간이 작년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우선심사에 한해 심사관의 검토기한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가량 단축하여 출원인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지원한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인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보정안 리뷰 및 재심사 면담의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회 더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고, 면담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IPG}

File No.208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2025년 12월 17일, 지식재산처는 ‘차’ 승격 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김용선 처장은 최근 경제성장 논의의 중심에는 ‘지식재산’이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과 세부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뤄진 주요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핵심 포인트

지식재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국민참여아이디어발굴체계 ‘모두의아이디어공모 프로젝트’ 추진
 - 지식재산거래소 개편 및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 기업 20개사 육성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 해외기술유출 및 K-푸드·K-뷰티 등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 ‘인공지능(AI) 특허전략지도’ 구축, 심사대기기간의 획기적 단축 및 AI 핵심기술 확보 지원
 - 국가유산·향토 문화유산과 지식재산을 결합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이러한 구체적인 관점들을 아래의 4대 전략으로 나누어 상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 구축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기업, 사회, 공공부문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국가 정책이나 연구개발(R&D)까지 이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전문관을 2030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의 주도하에 전 국민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현장에서 가치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 한국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

현재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제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K-브랜드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당한 기술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외 기술

유출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브랜드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뷰티, 패션 등 상표권 침해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는 ‘지식재산(IP) 분쟁닥터’를 신규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상표선점 경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와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를 신설하고 기능을 집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인공지능의 대전환, 지식재산이 선도

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핵심특허를 분석하여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인프라 및 응용 AI 분야의 과제에 대해 산업 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현재의 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특하는 10개월대, 상표는 6개월대로 단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 지식재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향토 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연계하여 사업화하고, 전통시장 및 특산물 등에서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하여 명품 브랜드화함으로써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 사업화, 금융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가칭: 지식재산 혁신스퀘어)를 구축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6. 마무리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보고이자, 김용선 처장 취임 이래 첫 보고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향후 한국의 지식재산을 통한 국정운영 방향성과 기술 기반의 경제 발전은 이번 보고에서 제시된 전략을 토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 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 심판관으로서 심사 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 특허청 총무과 조정과 심판과 과장 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209

2026년도 예산으로 보는 지식재산 행정의 전망



2025년 12월 2일, 2026년도 지식재산처의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42억 원, 13.3% 증액된 규모로 지식재산 행정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예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예측되는 한국 지식재산 행정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의 핵심 포인트

2026년도 지식재산처의 예산은 크게 세 가지 핵심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둘째, 자금 조달 및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화 및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셋째, 모조품 및 위조상품 대책과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관점에 따라 각각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심사·심판 서비스와 관련하여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심사 기술 개발 및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 등 AI 기반 심사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 및 심사 경향 등 실무 정보를 한국 기업에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 2025년 422억 원 → 2026년 513억 원(+91억 원)
-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 2025년 20억 원 → 2026년 36억 원 (+16억 원)
-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 ISP/BPR : 2026년 11억 원 (신규)
-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 2026년 8억 원(신규)

3. 자금 조달 및 수출 기반 마련, 사업화와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자금 및 기반 구축, 사업화 등 지원과 관련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제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장 위기에 처한 우수한 특허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책 현안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금융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2025년 23억 원 → 2026년 155억 원(+132억 원)
-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트업 육성 : 2025년 120억 원 → 2026년 155억 원(+35억 원)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2026년 100억 원(신규)
-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 2025년 11억 원 → 2026년 63억 원(+52억 원)

4. 모조품 위조상품 대응 및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모조품 등의 대응과 관련하여 “위조상품 및 모조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K-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위조상품 감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해외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의 지식재산 소송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편성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모조품 대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2026년 94억 원(신규)
- 인공지능 위조상품 판정 지원 : 2026년 29억 원(신규)
- 인공지능(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 2026년 12억 원(신규)
- 해외 특허 관리 전문 회사 위기 대응 기반 구축 : 2026년 10억 원(신규)

5. 마무리

이번에 확정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의 핵심인 심사 관련 부분에서는 특히 선행기술조사 관련 예산이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술문헌에 대한 대응을 강화, 특히 AI를 활용한 기반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른바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전개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K-브랜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조품 대책 또한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 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 심판관으로서 심사 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 특허청 총무과 조정과 심판과 과장 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210

2025년도 특허출원 건수



2026년 1월 29일, 지식재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역대 최초로 26만 건을 달성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특허출원 건수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동향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1. 특허출원 건수 추이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에 20만 건을 돌파하여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5년도에 처음으로 2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0년부터 20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인 반면, 한국에서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2013 | 2020 | 2024 | 2025 |
|----|---------|---------|---------|---------|
| 일본 | 328,138 | 288,472 | 306,855 | - |
| 한국 | 204,589 | 226,759 | 246,245 | 260,797 |

한일 특허출원 건수 추이 (일본의 2025년도 수치는 작성일 기준 미발표)

한편, 지식재산처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5대 특허청(IP5)의 2024년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중국(1,828,054건), 2위 미국(603,194건), 3위 일본(306,855건), 4위 한국(246,245건), 5위 유럽(199,402건)

2. 산업별 특허출원 건수


또한 지식재산처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기준 산업별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봤을 때, 2025년 국내 특허출원 상위 10개 분야 중 AI와 양자 기술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의 특허출원은 27,0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역시 10,624건을 기록하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대표 3개사를 비롯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원 건수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4.4% 상승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현저한 진보를 보이며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특허출원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0월 대비 이듬해 같은 기간에 해당하 는 구체적인 출원 건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 22,318건 → 27,033건
- 이차전지 관련 산업: 9,285건 → 10,624건

3. 해외 출원

한국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세계 5대 특허청(IP5)에 출원된 건수가 전년 동기(56,989건) 대비 17.6% 증가한 67,025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32,976건으로 주요국(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해외 출원 중 가장 큰 비중(49.2%)을 차지하였고, 중국에 출원한 특허는 16,621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72.3%)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 내 지식재산 활동의 중요성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만일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도 특허권 등으로 방어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특허권에 국한되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제품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모조품 및 위조상품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처가 인용한 202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데이터센터 등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1,395건, +31.4%), 인도(3,826건, +8.1%), 대만(3,365건, +8.1%) 등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특허출원 대상국 및 지역이 기존 미국, 중국 중심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최대 무역 수출국·지역(수출금액 기준)이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베트남, 4위 대만, 8위 인도인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수출 대상국도 특허출원 대상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VUCA 시대에 접어들며 기업 활동도 소수의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기업도 여러 국가에 무역 수출을 전개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들에서 특허출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보고에서 알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특허출원 건수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한국의 실태는 연구개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그 결실이 지식재산권의 확보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 전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AI 등 유망 기술 분야의 출원이 활발한 것은 시의적절한 흐름이며 해외의 여러 국가로 출원이 분산되는 것 또한 매우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츠카 유우이치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 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 심판관으로서 심사 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 특허청 총무과 조정과 심판과 과장 보좌, 영국 게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야마구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